

광주FC 이정호 감독 2024년까지

1부리그 승격에 능력 인정
“올해는 또 다른 도전 될 것
광주만의 저력 보여주겠다”

광주FC의 '이정호'가 2024년까지 간다.

올 시즌 1부리그로 승격한 프로축구 광주가 18일 이정호 감독과 2024년까지 재계약을 맺었다.

이정호 감독은 지난해 광주 7대 감독으로 부임해 강등 1년 만에 승격을 일궈내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초보감독'으로 시작해 '우승감독'으로 마무리한 극적인 2022년이었다.

앞서 2016년과 2017년에 남기일 감독을 보좌해 광주의 수석코치로도 활약했던 이정호 감독은 지난해 광주 지휘봉을 잡고, 프로 첫 감독 생활을 시작했다.

시즌 전까지 광주는 '우승후보'와는 거리가 있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광주지만 이정호 감독은 부임 첫 해 자신의 색을 확실히 보여줬다.

개막전에서 신생팀 김포FC에 일격을 당했지만 이후 전열을 가다듬은 광주는 25승 11무 4패(86점)의 압도적인 성적으로 우승까지 내달렸다. 4경기를 남겨놓고 K리그2 역대 최단 기간 우승을 확정했고, K리그2 최다승·최다승점 기록도 갈



아치했다. 이정호 감독은 K리그2 홈 최다연승(10연승), 홈 전 구단 상대 승리 등의 기록도 남겼다.

빈틈 없는 전술과 생각하고 뛰는 축구로 선수층을 두껍게 쌓은 이정호 감독은 K리그1, 2부 감독을 대상으로 하는 '이탈 감독상'을 두 차례(4·9월) 수상했고, K리그2 대상 시상식에서도 감독상 주인공이 됐다.

감독 첫 해 우승 트로피와 감독상 트로피를 동시에 들어 올린 이정호 감독은 재계약을 통해 2024년까지 광주의 축구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이정호 감독은 "광주는 나를 믿어준 팀이다. 멋진 응원을 보내 준 팬 여러분과 오랜 기간 함께하고 싶다"며 "2023년은 또 다른 도전이 될 것이다. 광주만의 저력을 보여드리겠다"고 재계약 소감을 밝혔다.

광주 관계자는 "이정호 감독은 우승과 승격이라는 선물만 준 게 아니다. 선수단에 자율과 책임을 부여하고, 근성 있는 축구를 보여주면서 광주만의 팀 컬러를 만들어 냈다"며 "4번의 시행착오는 없다. 1부리그에서 경쟁력을 보일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현재 태국 치앙라이에서 이정호 감독의 새로운 전술을 익히면서 1부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광주 선수단은 오는 31일 귀국길에 오른다.

이후 2월 3일부터 제주에서 3차 동계훈련을 갖고 2월 25일 예정된 수원삼성과의 2023시즌 개막전에 맞춰 정예 멤버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라파엘 나달(스페인)이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2023 호주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매켄지 맥도널드(65위·미국)에게 세트스코어 0-3(4-6 4-6 5-7)으로 패배하고 낙담한 표정으로 테니스 코트를 떠나고 있다. 나달은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바 있다. /연합뉴스

호주오픈 디펜딩 챔프 나달 2회전 탈락

65위 맥도널드에 0-3 완패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인 호주오픈 테니스대회(총상금 7650만 호주달러·약 662억6000만원)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했다.

나달은 1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남자 단식 2회전에서 매켄지 맥도널드(65위·미국)에게 0-3(4-6 4-6 5-7)으로 완패했다.

지난해 이 대회에서 우승한 나달은 2년 연속 우승의 꿈이 일찌감치 깨졌다.

나달이 출전한 메이저 대회에서 3회전(32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2016년 호주오픈 1회전 탈락 이후 이번이 7년 만이다.

메이저 대회 남자 단식 최다 우승 기록(22회)을 보유한 나달은 이번 대회에서 노바크 조코비치(5위·세르비아)가 우승할 경우 조코비치와 나란

히 22회로 공동 1위가 된다.

나달은 지난해 호주오픈과 프랑스오픈을 석권하며 2회 우승을 달성했다.

이후 US오픈 16강 탈락을 시작으로 이번 대회 전까지 최근 공식 경기에서 1승 6패로 부진했던 나달은 이를 전 1회전에서 잭 드레이퍼(38위·영국)를 3-1(7-5 2-6 6-4 6-1)로 꺾었으나 3세트 게임스코어 4-1로 앞서다가 4-4까지 따라잡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나달은 이날도 2세트 후반에 메디컬 타임아웃을 요청하는 등 몸 상태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였다.

톱 시드인 나달을 꺾은 맥도널드는 2018년 윈블던과 지난해 호주오픈 16강이 자신의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인 선수다.

2020년 프랑스오픈 2회전에서 나달에 0-3(1-6 0-6 3-6)으로 완패한 아픔을 이번에 설욕했다. /연합뉴스

“내 실력은 60점, 남은 40점 채우려 뛰다”

광주FC '살림꾼' 정호연

왕성한 활동 거침없는 플레이
“올해는 볼에 더 욕심 내겠다”

'두 얼굴'의 정호연이 2023시즌에도 광주FC의 '살림꾼'으로 뛴다.

정호연은 광주 금호고-단국대를 거쳐 지난해 프로 무대에 뛰어든 2년 차 선수다. 왕성한 활동량과 신인 다운 투지로 프로 첫해 36경기를 소화했고, 올 시즌에도 좋은 몸 상태로 이정호 감독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거침 없는 플레이로 광주의 '반칙왕' 계보를 이으면서 경기 흐름을 조절하는 정호연이지만 그라운드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이다.

태국 치앙라이 캠프 룸메이트이자 주장 안영규가 "생활할 때는 너무 순수하고 순박하다. '바보 청년' 느낌이다. 조용하고 돌아다니는 것도 안 좋아한다. '집들이'다"라며 웃을 정도지만 그라운드에 오르면 눈빛부터 달라진다.

정호연은 "감독님께서 요구하시는 것도 있고 끊어야 할 때 확실히 끊어야 한다. 우리 선수들이 호흡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칙으로 끊는다. 알아서 몸이 움직여진다. 나한테서 빠지면 우리 팀 수비하고 바로 맞닥뜨리게 되니까 파울로 끊는 게 좋다"며 "쉬는 날에는 나가는 걸 안 좋아한다. 프로 와서 아마 때때로 훨씬 많이 뛴다. 그라운드에서 많이 뛰어서 그런지 실 때는 누워만 있고 싶다. 체력관리를 위해 아무것도 안 한다"고 웃었다.

지난 시즌 전 이정호 감독은 "만들어 보고 싶은 선수"라며 정호연을 지목했다. 시즌 초반에는 실수도 많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입지를 넓히면서 눈부신 2022시즌을 보냈다.

정호연은 "22세 룰도 있고 한니까 처음에는 15경기 뛰면서 경험을 쌓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감사하게 기회를 많이 받아서 많이 성장할 수 있었다"며 "내가 생각했던 템포하고 완전히 달랐다. 공을 잡으면 내가 뭘 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압박의 속도, 생각의 차이 그런 게 되게 컸다. 처음에는 공이 오는 게 무서웠다. 빨리 줘야 할 것 같고 그랬는데 20경기 정도 뛰고 나서는 자신감이 생겼다"고 지난 시즌을 돌아봤다.



태국 치앙라이에서 2차 동계훈련 중인 광주 FC의 정호연이 레오 치앙라이 스타디움에서 드리블 훈련을 하고 있다.

이정호 감독은 정호연을 키운 특별한 스승이다.

정호연은 "감독님이 밖에서는 인자하시고 안에서 냉철하신 분이죠. 엄청 디테일하시다. 축구 하면서 이렇게 많은 것을 가르침 받은 게 처음인 것 같다"며 "나의 축구 모든 부분을 끌어내주셨다. 확장시절만 해도 수비를 선호하지 않았다. 공을 끌고 다니는 것을 좋아했다. 여기서 굳이 내가 좋은 걸 하지 않아도 팀원들을 통해 더 좋은 공간, 좋은 선수한테 보내줄 수 있다는 게 새로웠다. 감독님이 우물쭈물하게 뻗기 바에는 자신 있게 하라고 하신다. 자신 있게 해야 다음에 그 상황이 왔을 때 다른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신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데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쏟아지는 시선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정호연은 "부담감이 없다. 내가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잘하고 싶고, 더 성장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정호연이 평가한 2022시즌은 '60점'. 남은 40점을 채우기 위해 올 시즌 '전진'을 예고했다.

그는 "아직 성장할 게 많고, 보여줄 게 많아

40점을 뺐다. (60점은) 내가 목표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경기를 뛴 부분이다. 행들이 조인해준 게 수비를 하고 공을 연결시켜주면서 서서히 눈이 뜨이고 앞을 볼 수 있다고 해서 지난해에는 수비적인 부분을 가장 먼저 생각했다"며 "연결하는 게 주목적이고, 수비 타이틀하게 하는 부분을 신경 썼다면 올해는 조금 더 앞으로 향하는 것들을 하고 싶다. 전방으로 패스,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것들을 처리하려고 한다. 올해는 볼에 대한 욕심을 내겠다"고 밝혔다.

첫 해의 동계훈련을 통해 정호연은 '욕심'을 키워가고 있다.

정호연은 "따뜻한 곳에서 훈련하면서 부상 방지도 되고 축구에만 집중할 수 있어서 좋다. 익숙지 않은 환경이라 색다른 건 있지만 감독, 코치님들도 같고 선수 변화도 없어서 비슷한 느낌이다. 지난해에는 그냥 따라가는 느낌이었다면 올해는 뭘 해야 할지, 필요한 게 뭘지, 이 팀에서 할 수 있는 게 뭘지 더 찾으면서 훈련하고 있다"며 "준비 잘해서 더 발전된 모습으로 K리그1에서 경쟁력 있는 선수가 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콘테 감독 "손흥민은 로봇이 아닌 사람"

최근 부진한 성적 두둔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의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최근 부진한 손흥민을 향해 "로봇이 아닌 사람"이라고 두둔했다.

콘테 감독은 17일(현지시간) 맨체스터 시티와 2022-2023 EPL 21라운드를 이틀 앞두고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흥민에 대한 질문에 "선수도 사

람"이라고 답했다.

지난 시즌 리그 득점왕(23골)에 오른 손흥민이지만 올 시즌에는 17경기에서 네 골에 그치고 있다.

19라운드 크리스털 팰리스와 경기에서 9경기 만에 침묵을 깨고 골 맛을 봤지만, 20라운드 아스널전에서는 유효슈팅 1개에 그치며 현지 매체들로부터 4~5점대로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다.

콘테 감독은 "올 시즌 손흥민은 지난 시즌만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좋은 소식은 아니다. 우리도 손흥민의 골 수를 셀 줄 안다"면서도 "우리는 로봇이 아닌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시즌을 4위로 마쳐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출전권을 따낸 토트넘은 시즌 후반기를 맞은 17일 기준 5위(승점 33)에 자리해 있다.

콘테 감독은 "선수가 재능에 어려움을 겪을 때의 료진 쪽에서 이 자리에 나와 이야기하는 걸 본 적이 없다"며 "영국에서는 감독만 나와서 말하고 설명하는 나쁜 관습이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